

주일 예배 2026년 10월 4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만유의 주재 / 찬송가 32(신) 48(구)

*성시 교육 / 성시 교독문 75 번(마태복음 6 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 찬송가 410(신) 468(구)

기도 / 장미혜

성경 봉독 / 이사야 9장 7절, 고린도후서 11장 2-4절 / 다같이

성가대 찬양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말씀 선포 / 하나님도 열심을 내십니다 / 박화신 목사

성찬식 / 환난과 핍박 중에도 / 찬송가 336(신) 383(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진리와 생명 되신 주 / 찬송가 630(신) 54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천지를,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권능의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무슨 일에 그리고 왜 그리 열심을 내신다고 강조를 하시는지 우리의 경건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변화에 등지고 살면 그만일 것같은 현세의 삶에, 불안한 마음 감추지 못하며 결국 따라가고 마는 우리의 현실은 '주님의 열심'을 이래저래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고 맙니다.
3. 뭔가에 감사하면 평안이 오는데, 그 감사는 허울좋은 고백일뿐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평안을 설교한 원인을 이해해 봅시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지난 주
설교 요약

다 드러난
자리에서

히 4:12-1

1.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자신의 미래를 어느 정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은 시작하기도 전에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 앞에서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예상했던 직장, 관계, 가정, 은퇴 이후의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내 인생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삶은 계획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 에스겔은 자신이 원했던 자리에서는 멀어졌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의 의미를 당장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장면보다 훨씬 넓은 시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3. 그래서 선지자적인 성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게 현실을 읽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삶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일이 잘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생각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4.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계획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림 안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지금 내게 맡겨진 사람과 자리와 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그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샘소식

1. 2026년 교회 표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의 힘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셔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 오늘 주일 예배를 EM과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성찬식 있습니다.
4. 10월 24일 토요일 각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목장 모임을 위한 목자 모임을 10월 18일 주일에 갖습니다.
5. 10월 25일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6. 최명희 권사님(권사 합창단) 연주회 있습니다.
10월 11일 주일 저녁 6시, 레이크뷰 언약교회

10월 예배위원

안 내	박래석	최명희
기 도	장미혜(4)	조창(11)
	박승화(18)	한광기(25)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이사야 9:7, 고린도후서 11:2

GRACE
FOR
TODAY

하나님도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는 평강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7

오늘 말씀의 3가지 핵심

1 하나님의 열심은
평강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천지를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십니다. 그 열심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정의와 공의와 평강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열심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열심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이사야 9:7)

2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지키십니다

변화에 등을 지고 살면
그만일 것 같은 현세의 삶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결국 따라가고 마는 우리의
현실은 '주님의 열심'을
이래저래 무시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와 사탄과 거짓에서
건져 내어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2)

3 하나님의 열심은
감사의 이유가 되고,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합니다

감사는 평안을 가져오지만
허울 좋은 고백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평안을 설교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보다 크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 이웃을 위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디도서 2:14)

하나님의 열심을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바라보며, 나의 경건을
그분의 열심에 맞추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고린도후서 11:2